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결혼 만족도에 대한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효과  
Interaction of External Family Support and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Under the Economic Crisis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권희경\*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Kwon, Hee-Kyung

<Abstract>

External social support for family can be an important resource for families to overcome economic pressure, and can be a way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process of family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Korean economic crisis. To explore the role of external social support that alleviates the negative effects of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the buffering effects were tested in two ways. Firs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external social support and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was tested using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 model. Second, the scores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plotted by the median scores of economic pressure and external social support. Results from the analyses of 191 couples (382 husbands and wives) indicated that external social support help families by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s of economic pressure on marital satisfaction by interacting with economic pressure.

▲주요어(Key Words) : 가족외부지원(external family support), 경제적 압박(economic pressure), 상호작용(interaction) 경제 위기(economic crisis), 결혼만족도 (marital satisfaction)

I. 서론

지난 2008년 하반기 미국의 부실 주택담보 대출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는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증명하듯 급격한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에 영향을 바다 2009년 상반기에는 여러 경제 지표들이 경제 후퇴를 보여주었다. 그 예로,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 3월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였으며(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은행은 -2.4%로 전망하였다(한국은행, 2009).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은 고용과 소득 여건 악화로 이어져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파생적인 가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상반기에 혼인 및 출산 지연과 감소, 생활고로 인한 이혼, 자살 등의 통계는 경제적인 위기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1997년 우리 경제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경험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문제는 다양하게 접근되었다.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문제를 살펴본 연구들 (곽인숙 등, 1999; 박명희, 1998; 안병철, 1998; 이미숙 등, 2000; 최규련, 1999; 최혜경, 1998; Kwon et al., 2003)은 경제적 위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 결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경제적 위기가 직·간접적으로 가족의

\* 주저자·교신저자 : 권희경 (E-mail : hkkwon@changwon.ac.kr)

안정성을 위협하고 가족의 해체를 부를 수 있는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게 돕는 보호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위기를 겪는 가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이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권희경, 2009). 외국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경제위기 등의 생활의 위기를 개인발달의 수준에서나(Elder, 1974), 가족생활의 수준(Conger et al., 1999; Conger & Conger, 2002)에서 잘 극복하고 변화된 상황에 잘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개인의 발달과 가족의 여러 기능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족도 있다(Eler & Caspi, 1988; Elder et al., 1992; Lempers et al., 1989; Meyhew, 1998; Meyhew & Lempers, 1998; Vinokur et al., 2006; Voydanoff, 1990; White & Rogers, 2000). 이러한 차이는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가족의 레질리언스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족연구자들이 가족의 건강성과 긍정적인 능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레질리언스 개념은 가족이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cCubbin & McCubbin, 1988; Walsh, 2006). 개념적인 차원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이론적인 면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에 비해, 실질적인 가족 관계와 생활의 측면에 있어서 가족이 역경을 극복하고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그리 많지 않다(Hawley & DeHaan, 1996; Patterson, 1998; 2002). 따라서 가족이 경제적 위기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이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외부 지원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위기상황에 있는 최근 한국사회와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경험하는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가족을 보호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경제적 압박과 가족의부지원이 상호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가족이 경제적 압박이라는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기제를 탐색하고, 실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족 생활의 레질리언스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어느 정도의

예측되고 규범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발달적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환경요인에 의해 일어난,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사회와 개인의 삶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위기가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Conger & Elder, 1994). 그 하나는 경제적 긴장사건 또는 위기 사건으로서, 사회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족이 1차적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사건들이다. 즉, 가족원의 실업, 소득 감소, 직업의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가족의 경제적 상황 변화이다. 1997년의 경제 위기 직후 실업과 실직, 또는 직업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안병철, 1998; 최규련, 1999; 최혜경, 1998)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압박으로서,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2차적으로 나타나는 가족생활의 변화이다. 경제적 압박에는 가계수지 악화, 채무의 증가, 자산 감소와 함께, 가족이 변화된 상황에 반응하여 가족의 경제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들이 포함된다. 즉, 가계수지를 맞추기 위해 소비와 구매 패턴을 변화시키거나, 가족의 경제적 요구를 위해 금융상품을 해약하거나, 금융기관이나 친지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사건이 경제적 압박의 예이다. 가족스트레스 이론에서는 객관적인 사건이나 위기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가족의 반응과 적응을 더 중요하게 본다(이미숙 등, 2000; Boss, 2000; Conger & Elder, 1994). 따라서 가족이 겪는 두 가지의 경제적 위기 중에서 가족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응인 경제적 압박이 가족생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족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2. 경제적 압박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압박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농업경제 위기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한 이후, 경제적 압박과 가족생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대체로 많은 연구(Conger et al., 1990; Larson et al., 1994; Ulrichson & Hira, 1985; Voydanoff et al., 1990; Windle & Dumenci, 1997)들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계속적인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은 가족생활만족도와 관련된다거나(Larson et al., 1994; Voydanoff et al., 1990), 높은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경험한 가족에서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높으며, 종단적으로 자녀의 우울감이나 정서적 부적응이 관찰된다는 결과(Conger et al., 2000; Kwon, 2003)를 보고 하고 있다.

그에 비해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IMF 시기'로 대변되는 1997년 후반기의 급박하고 전반적인 경제 위기 이후에야 경제적 압박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족원의 정서적 부적응, 부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 주었다(곽인숙 등, 1999; 박명희, 1998; 이미숙 등, 2000; 조은숙·박혜인, 1998; 최규련, 1999; Kwon et al., 2003).

부부가 중심인 핵가족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족생활의 일부가 부부관계이므로, 경제적 압박과 부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경제적 위기가 가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는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정자, 1998; 고정자·김갑숙, 1996; 이희정·이숙현, 1995; Guelzow et al., 1991; Windle & Dumenci, 1997). 특히 부부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결혼만족도나 갈등, 친밀감 등의 요소로서 부부관계를 측정하여 생활의 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가 적합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불만족의 측면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보고되는 경향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는 전 사회에 부과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지각과 반응은 가족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가족은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 더 결속력 있는 가족이 되는 반면에, 어떤 가족은 이혼, 자살 등을 통해 가족해체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가족의 레질리언스 수준이다. 가족의 적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가족의 레질리언스 요소들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가족 외부 지원의 역할

스트레스 사건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은 그러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은 개인과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자원이 될 수 있다 (Cohan & Bradbury, 1997; Cutrona, 1996; Perling & McCall, 1990). 미국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게 사회적 지원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Conger et

al., 1999)가 나왔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가족에게도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지원은 하나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여러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제공받은 지원보다는 지원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고선주, 1996; Cutrona, 1996). 또, Silliman(1997)은 체계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요소가 가족 내외에서 동시에 발견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 외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지원을 구성하는 도구적 지원 및 정서적 지원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는데(고선주, 1996; 이미숙, 1996). 경제적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한 연구(김범준 등, 2005)가 있었으나, 자료가 1997년의 경제 위기 이전에 수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실직자 가족 중 해체된 가족과 해체되지 않은 가족 간의 사회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노혜련, 2000)는 경제 위기 이후 가족의 경험을 비교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족의 해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가족이 외부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경우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아내의 스트레스 및 아내의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밝힌 결과(권희경, 2009), 정부의 교육비 지원이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주부의 가정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질적 연구 결과(고선강, 2009)는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이 상호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배우자의 정서적 지원이 실직자와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됨을 제시하는 결과(박영신·김의철, 2000; 박영신 등, 2002) 및 저소득층 여성 가장이 친가와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이 높은 생활만족도와 관련된다는 결과(이재림·옥선화, 2001) 등은 가족이 가족 내·외부로부터 받는 지원을 통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를 경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 가족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 중 가족생활주기 상으로 자녀교육기에 해당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발달 주기상에서 볼 때, 가족에는 두 번의 경제적 위기(Life Cycle Squeeze)를 맞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혼기 및 자녀

출산기이며 두번째는 청소년 자녀이다(Voydanoff, 1990). 이 시기에는 가족자원보다 지출이 많고, 가족이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 중 신혼기 및 자녀 출산기는 부부로서의 적응과 부모로서의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달적 위기가 경제적 스트레스와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출 압박의 측면을 고려하여 자녀교육기 가족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가와 거주계층을 고려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부모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뒤 수거하였다. 1997년 7월과 8월 사이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장 및 담임교사의 동의 하에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별도의 봉투에 담긴 설문지를 학생들이 부모에게 전달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총 300쌍(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51쌍(50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척도에 대한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91쌍(382부) 부부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 남편의 평균 연령은 42.5세였으며, 아내의 평균 연령은 39.7세였다. 설문 당시 평균 결혼 지속 년수는 16.1년이었다. 그리고 1997년의 월평균가족소득의 평균은 2,455,751원이었고 중간값은 2,316,100원이었다. 참고로, 1997년 4인기준 근로자 가구당 한 달 평균 소득은 2,352,741원(통계청, 1998)이었으므로 대체로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가족 소득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우리나라가 1997년 처음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직후에 수집되었는데, 다시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 1. 측정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측정 도구는 '경제적 위기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Conger & Conger, 1994)'에 사용된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경제적 압박,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를 남편과 부인의 응답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가족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추가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신뢰도와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의 상관관계에 따르면,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이들 변수는 결혼만족도 및 사회적 지원과 대체적으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지원은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도는 .73에서 .83 사이로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각 문항에 대한 개인들의 응답이 지나친 편차 없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 간의 상관 계수는 -.10에서 .41 사이에 분포하여,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1) 경제적 압박

경제적 압박은 가족이 인지하고 느끼는 가족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로서,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Conger & Elder, 1994; Conger et al., 1993; 1999; Hraba et al., 2000). 경제적 압박은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1) 가계수지를 맞추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2)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정, 3) 대출 또는 빚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6 개월 동안 각각에 해당되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응답(1=예, 0=아니오) 평균을 합산하였다.

<표 1> 변수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응답 가능 범위 및 신뢰도

(n=191쌍)

변 수	1	2	3	4	5	6
1. 경제적 압박	-					
2.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	.25**	-				
3.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31**	.41**	-			
4. 부부갈등	.29**	.12	.38**	-		
5. 결혼만족도	-.21*	-.22*	-.31**	-.42**	-	
6. 사회적 지원	.11	-.13*	-.17*	-.10	-.12	-
평 균	3.45	39.74	38.18	35.24	20.14	26.45
표준편차	3.90	10.01	9.98	16.40	5.28	14.35
응답 가능 범위	0-10	14-70	14-70	13-65	7-28	10-50
신뢰도 (Chronbach's alpha)	NA	.83	.81	.79	.74	.73

\*p<.05, \*\*p<.01

NA: 해당 없음(Not Applicable).

2) 정서적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는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 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를 사용하여 1)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과 2) 생활사건에 대한 대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좌절, 불안, 화 등의 심리적 증상과, 일상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통제력 부재와 대처 능력 부족 등을 묻는 Likert scale(1=전혀 그렇지 않았다, 5=매우 그랬다) 14 문항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응답의 합산을 각각 사용하였다.

3)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족 관계와 부부 생활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 언쟁, 싸움의 빈도를 묻는 13 문항의 Likert scale (1=전혀 없었다, 2=언제나 그랬다)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응답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정현숙(1997)이 수정한 Kansas Marital quality Scale (RKMS)을 사용하였다. RKMS는 전반적인 결혼 생활, 배우자,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배우자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한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응답 (1=매우 불만, 7=매우 만족)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5) 가족 외부 지원

가족 외부 지원은 남편과 아내의 응답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가족 외부 지원은 남편과 부인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 외부의 사용 가능한 지원들로서, '우리 가족이 문제체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친지가 있다,' '친척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지역의 복지관에서 정보를 얻는다,' '종교에서 도움을 얻는다,' '문제가 있을 때 가족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등의 공공건강 관련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된 10 문항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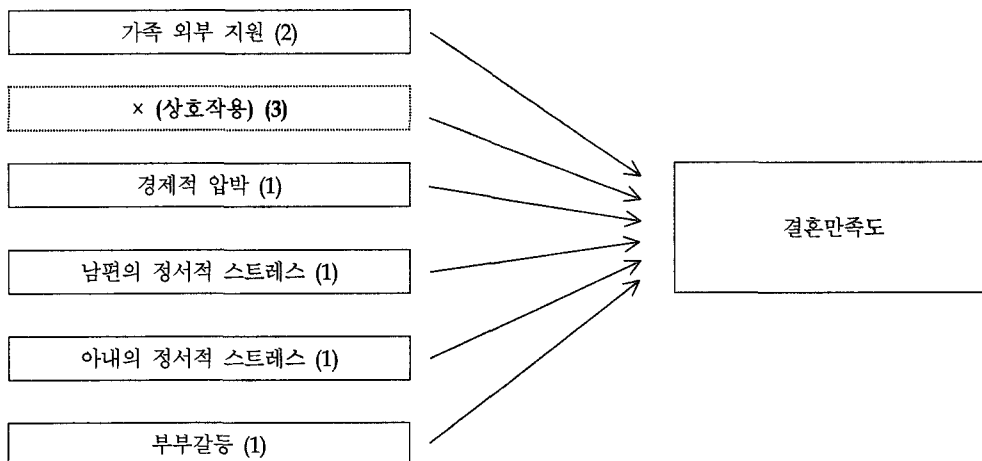
남편과 아내의 응답(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및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도식화하였다. 먼저, 경제적 압박,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이 독립변수로서 포함되었으며(1), 가족 외부 지원(2),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3)이 단계적으로 추가되었다.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항은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이 상호 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지원의 상호작용 변수가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하게 관련이 된다면, 이는 가족 외부 지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가족 외부 지원이 갖는 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기준으로, 결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 모형은 세 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적 압박,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 외부 지원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지원의 상호 작용항이 독립변수로 추가되었다. 각 단계에서의 R<sup>2</sup> 값의 변화와 함께, 마지막 단계에서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지원의 상호작용항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1> 결혼만족도에 대한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압박의 상호 작용

본 연구의 초점은 가족 외부 지원의 경제적 압박의 영향력을 상쇄하여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가족 외부 지원과 다른 변수들의 상호작용은 가설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족발달단계가 동일한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보를 제공한 참여한 남편의 65%와 아내의 47%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이는 등 사회인구학적인 면에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분석모델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둘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으로서 플롯화와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가족을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네 집단(경제적 압박이 높고 가족 외부 지원이 높은 집단; 경제적 압박이 높고 가족 외부 지원이 낮은 집단; 경제적 압박이 낮고 가족 외부 지원이 높은 집단; 경제적 압박이 낮고 가족 외부 지원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집단의 결혼 만족도를 플롯화 하여 평균 값의 차이를 t-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IV. 결 과

##### 1.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 작용 효과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 작용 효과가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따르면, 모델 2에서의 가족 외부 지원과 모델 3에서의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 작용항이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각 항이 포함될 때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모델 1)에서는 경제적 압박,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모델 1에서는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결혼만족도 변량을 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중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유의하게 결혼 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압박은 직접적으로 결혼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는 부부갈등이었다( $\beta=.37$ ).

두 번째 단계(모델 2)에서는 가족 외부 지원을 추가하여 결혼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족 외부 지원을 독립 변수로 추가함으로써 결혼만족도 변량에 대한 모델 2의 설명력은 2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결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가족 외부 지원이 유의하게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도 결혼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큰 변수는 부부갈등이었다. 모델 1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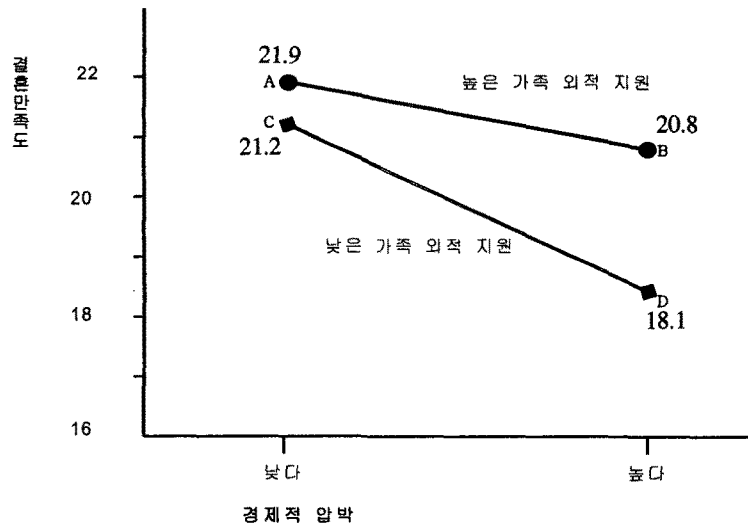
사회적 지원은 결혼만족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원이 1단위 증가할 때, 모델 2의 결과는 결혼만족도는 척도상으로 .72 증가함을 보여 준다. 상대적 영향력의 순위는 부부갈등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에 이어 3위였다.

마지막 단계(모델 3)에서는 가족 외부 지원 이외에도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 작용 항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결혼만족도 변량에 대한 모델 3의 설명력은 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는 부부갈등, 가족 외부 지원, 가족 외적 자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이었다. 모델 3에서는 이 전의 두 모델에서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없던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 외에도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역시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에

<표 2>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SE B)	$\beta$	B (SE B)	$\beta$	B (SE B)	$\beta$
경제적 압박	-2.28 (1.24)	-.12	-2.10 (1.10)	.11	-2.23 (1.21)	-.10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	-.14 (.10)	-.07	-.15 (.11)	-.09	-.11 (.08)	-.06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18 (.09) *	-.25	-.17 (.08) *	-.22	-.15 (.08)	-.12
부부갈등	-.22 (.04) ***	-.37	-.21 (.04) ***	-.36	-.21 (.05) **	-.37
가족 외부 지원			.72 (.32) *	.19	.68 (.34) *	.19
경제적 압박×가족 외부 지원					2.00 (.83) **	.54
Constant	33.88 (2.01) ***		29.20 (2.44) ***		35.75 (3.64) ***	
R <sup>2</sup>	.22		.23		.27	
$\Delta R^2$	.22		.01 ***		.04 ***	

\*p<.05, \*\*p<.01, \*\*\*p<.001



<그림 2>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작용 효과

대하여 가족 외부 지원이 경제적 압박과 상호작용하면서 완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Aiken & West, 1991).

## 2.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에 따른 결혼 만족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이 상호 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좀 더 가시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플롯 분석을 하였다.

<그림 2>는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에 따른 결혼 만족도를 플롯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가족 외부 지원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 외부 지원이 높은 집단에는 91 쌍의 부부가 포함되었고, 낮은 집단에는 100 쌍의 부부가 포함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가족 외부 지원이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압박의 수준에 따른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가족 외부 지원이 낮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압박에 따른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원의 수준에 따른 결혼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원이 높은 집단(선 A-B)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낮은 경우(A) 결혼 만족도 수준이 21.9, 경제적 압박이 높은 경우(B) 결혼 만족도 수준이 20.8( $t = 1.15$ )로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 외부 지원이 낮은 집단(선 C-D)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낮은 경우(C) 결혼 만족도 수준이 21.2, 경제적 압박이 높은 경우(D) 결혼 만족도 수준이 18.1( $t = 1.97, p < .05$ )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모델에 바탕을 두고, 가족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적 압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사용된 개념을 중심으로 결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플롯화 하여 결혼만족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경제적 압박과 결혼만족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은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 가족스트레스 모델이 제안하는 바와 같다. <그림 1>에서 보듯,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는 경제적 압박 자체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 갈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도 결혼만족도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한 결과(Kwon et al., 2003)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부부갈등과 관련이 없었는데, 이는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와도 관련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 사이의 관계 부재 역시 과거의 연구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고 하겠다.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이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가족 외부 지원이 경제적 압박에 따른 결혼 만족도에 대하여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부간의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Conger et al.,

1999)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족 외부에서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가족이 경제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먼저, 가족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족 외적인 지원이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는 Silliman(1997)이 제안한 대로,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요소가 가족 외부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레질리언스가 가족스트레스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Patterson, 2002), 두 개념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가족 외부 지원을 통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으므로,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족 외부 지원을 모색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하고 극복해야 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외부 지원의 원천, 즉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어디로부터 가능한 가만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외부 지원의 제공자로부터의 지원이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의 정도와, 그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기존의 사회적 지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라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주, 1996; Julien & Markman, 1991).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원천과 함께, 그 지원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가족의 만족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모두 남편과 아내의 자기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러 연구들이 자기 보고에 의한 정보만을 이용해 개념을 측정하는 것의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Conger et al., 1999; Lorenz et al., 1991; Matthews et al., 1996; Suen & Ary, 1989)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제3자 보고 또는 관찰 등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가족관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변수가 모두 일회적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작용 효과, 즉 가족 외부 지원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완화 효과가 종단적인 가족스트레스 과정에 대한 완화 효과라기보다는 상관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가족 외부 지원의 장기적인 효과와 가족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레질리언스 과정(Patterson, 1998; Walsh, 2006)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구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겪을 당시에 남편과 아내로부터 동시에 정보를 구하여 수행된 연구로서, 가족스트레스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레질리언스에 대한 개념 및 과정에 대한 연구에 한 발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1997년의 경제 위기와는 달리 전세계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한국경제연구원, 2009). 이러한 장기적인 침체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이 10여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당시와 현재의 경제 위기의 성격 및 부부관계, 가능한 사회적 지원의 특성들 또한 변화했을 수 있다. 가족이 이에 반응하는 방식 역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가족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해결을 위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기 예방적 접근이 더욱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송해림 등(2009)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정책으로 '행복한 가족놀이터,' 위기에 직면한 가족을 위한 가정경영컨설팅, 교육비 부담 절감 서비스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가족 문제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장기적으로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가족의 역량과 건강성을 지켜내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고선강(2009). 주부의 가정자원관리에 대한 질적 접근: 경제위기에 대한 개별가정의 이해와 대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99-118.
- 고선주(1996).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 대한 이중 ABCX 모델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131-157.
- 고정자(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본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곽인숙 · 송효숙 · 김경애(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권희경(2009). 가족 외부 지원의 경제적 압박 완화 효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중심으로. **가족과**



- 문화, 21(2), 111-131.
- 김범준 · 박영숙 · 전영민(2005). 경제적 어려움, 대처 행동, 가족간 의사소통이 주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37-59.
- 노혜련(2000). 실직자 가족 중 해체된 가족과 해체되지 않은 가족간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욕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55-183.
- 박명희(1998). 국가경제위기-가정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영신 · 김의철(2000).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85-117.
- 박영신 · 김의철 · 김묘성(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 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 양식 및 사회적 지원: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05-135.
- 송혜림 · 성미애 · 박정윤 · 진미정(2009). 경제적 위기 상황과 가족정책의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151, 53-65.
- 안병철(1998). 실업과 가족: 실업의 영향, 매개요인,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화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숙 · 고선주 · 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3.
- 이재림, 육선화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희정 ·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측정을 위한 문헌 고찰과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 191-124.
- 조은숙 · 박태인(1998). 경제위기이후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대구시민에 대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39-154.
- 최규련(1999). 실직자 가족의 문제와 대처,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지원요구도 -실직자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47-51.
- 최혜경(1998). 실직자 가정의 가족생활.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통계청(1998).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통계연보.
- 한국경제연구원(2009).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은행(2009). 2009년 경제전망(수정) 보도자료.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L60003&IDTYPE=3](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L60003&IDTYPE=3).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oss, P. (2000). *Family Stress Management: A Contextual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5-396.
- Conger, R. D., & Conger, K. J. (2002). Resilience in midwestern families, Selected findings from the first decade of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61-373.
- Conger, R.D. & Elder, G.H.Jr.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Y.: Aldine de Gruyter.
- Conger, K.J., Rueter, M.A., & Conger, R.D. (2000). The role of economic pressure in the lives of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The family stress model. In L.J. Crockett, & R.K. Silbereisen, (Eds.) *Negotiating Adolescence in Times of Social Change* (pp. 201-223).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ger, R. D., Ge, X-J., & Lorenz, F. O. (1994). Economic stress and marital relations. In R. D. Conger and G. H. Elder Jr. (Eds.).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o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pp. 187-203). N.Y.: Aldine de Gruyter.
- Conger, R.D., Rueter, M.A., and Elder, G.H.Jr. (1999). Couple resilience to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54-71.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s. In G. R. Pierce, B. R. Sarason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73-194). N.Y.: Plenum.
- Elder, G.H. Jr., Conger, R.D., Foster, E.M., and Ardel, M. (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 5-37.
- Elder, G. H. Jr.,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25-45.
- Hawley, D.R. & De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 283-299.

- Julien, D., & Markman, H. J. (1991).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549-568.
- Kwon, H-K. (2003). Linking Economic Pressure to Adolescent Depression: Evaluating the role of Parenting. University of Minneso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won, H-K., Rueter, M. A., Lee, M-S. Koh, S., & Ok, S. (2003). Marital relationships Follow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 Applying the Family Stress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316-325.
- Lempers, J.,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McCubbin, H.I. & McCubbin, M.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254.
- Meyhew, K. P. (1998). Family financial strain and family relationship perceptions,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ed m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Meyhew, K. P., & Lempers, J. D. (1998). The relationship among financial strain, parenting, par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 145-172.
- Matthews, L. S., Wickrama, K. A. S., & Conger, R. D. (1996). Predicting marital instability from spouse and observer reports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41-655.
- Patterson, J.(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349-360.
- Patterson, J.(1988). Families experiencing stress: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Family Systems Medicine*, 5(2), 202-237.
- Perlin, L. I., & McCall., M. E. (1990). Occupational stress and marital support: A description of microprocesses. In J. Eckenrode & S. Core (Eds.), *Stress between Work and Family* (pp. 39-60). N.Y.: Plenum Press.
- Silliman, B. (1997). *Resiliency in family syste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Schumm, W.R., Paff, B.A., Hatchruth, C., Obiorah, F.D., Copeland, J.M., Meens, L.D., & Buraighis, M.A.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quality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uen, H. K., & Ary, D. (1989). *Analyzing quantitative behavior observation data*, Hillsdale, NJ: Erlbaum.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66-179.
- Voydanoff, P.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5.
- Walsh, F. (200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2nd Ed. N.Y.: Guilford.
- White, L., & Rogers, S. J. (2000). Economic circumstances and family outcomes: A review of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035-1051.

□ 접수일 : 2009년 06월 29일

□ 심사일 : 2009년 07월 28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9월 04일